

2. 인문 II

■ 문제배경 설명 : [문제 1] ~ [문제 2] 제시문

제시문 [가]는 롤스의 「정의론」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자유주의자의 제안을 축약하고 있다. 이 글에서 롤스는 모든 개인이 지닌 자유의 권리가 보장되는 한에서 그것이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롤스가 제시하고 있는 '차등의 원칙'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불평등이 완전하게 제거되기 어려운 것이라면, 그것이 최소수혜자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주는 조건 하에 용인될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는 자유주의자들의 관념 중에서 가장 평등지향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입장을 대변한다. (출처: 천재교육, 『윤리와사상』, 225쪽)

제시문 [나]는 정약용의 「전론」에서 발췌한 글로, 조선 말기의 시대 상황 속에서 토지 분배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그는 기존의 정전제나 한전제가 지닌 문제점들을 짚으면서 자신이 제안하는 '여전제'가 왜 더 나은가를 설파하고 있다. 여전제는 집단에 대하여 공동소유와 공동분배를 보장하지만,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더 많이 일하는 자에게 더 많이 분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등'의 가치를 남용하려는 사람들을 경계한다. (출처: 미래엔, 『독서와문법』, 225~226쪽)

제시문 [다]는 제시문 [다]는 이곡이 지은 「차마설」이라는 제목의 글이며, 말을 빌려 탄 자신의 일화를 통해 세상 모든 소유물들은 빌려 쓰고 있는 것들일 뿐이며, 이에 집착할 경우 화를 입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출처: 지학사, 고등학교 『문학』, 343쪽)

제시문 [라]는 '간디의 오두막'의 소박함을 통해 불필요한 소유에의 집착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을 지적한 이반 일리치의 글이다. (출처: 비상교육, 『독서와 문법II』, 145~147쪽)

[문제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 (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서 논의하고 있는 '평등'과 '불평등'의 차이점을 비교 서술하시오. [20점]
- (2) 제시문 [나]의 저자의 관점에서 다음 <보기>의 기사에 나타난 '키부츠'의 변화를 평가하시오. [20점]

<보기>

이스라엘의 집단 농장 '키부츠'가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1910년 세워진 이스라엘 최초의 키부츠인 '데가니아'가 사유화를 결정해 이스라엘 인들을 놀라게 했다. 투표 결과 회원 220명 중 85%가 사유화에 찬성표를 던졌다. 지금까지 키부츠 안에서 모든 재산은 공동 소유이며, 소속원이 번 돈은 공동 계좌로 입금해 가족 수에 따라 나누어 왔다.

사유화란 소속원들이 벌어들인 돈을 각 개인 계좌에서 스스로 관리하며, 키부츠 밖에 있는 산업체에서 일하고 받은 돈도 개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270여 키부츠 중 180곳이 노동 시간에 상관없이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포기했고, 25곳은 일을 잘 하면 임금을 더 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키부츠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로 공동 생산, 공동 분배하는 공산주의적 공동체이다.

■ 출제 의도

(1) 이 문제에서는 두 제시문에서 드러난 '평등'에 대한 관념과 '불평등'의 서로 다른 측면들을 비교함으로써 현실과 이념상의 괴리를 극복하려는 저자들의 제안을 충분히 이해했는가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이 문항은 여전제에 대한 제안을 통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조화롭게 유지하고자 하는 저자의 관점에서 '키부츠'가 겪는 오늘날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한 가상의 관찰결과를 정리하도록 요구한다. 제시문 [나]의 입장은 평등한 제도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본성과 잘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럴 경우 공동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키부츠의 고민에 대하여 제시문 [나]의 저자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지를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우수답안

(1) 제시문 [가]는 개인의 '자유' 관념과 배치되는 '평등'의 관념을 어떻게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저자는 자유주의의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이라는 복합적 관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제시문 [가]에서는 우선 공동소유와 공동경작을 위한 '여'를 통해 평등한 조건을 우선 허용한다는 점에서 정의론의 평등 개념보다 더 보편적인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불평등'에 대한 정의론의 주장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최소 수혜자들에 대한 최대의 혜택'이라는 조건 하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현

실적으로 만연해 있는 불평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조건으로서 그것이 가장 어려운 사람 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여전제는 우선 평등한 사회제 도를 마련한 후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생산물을 차등 분배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 에서 '최소 수혜자'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지 않고 있다.

(2)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는 공동소유, 공동생산, 공동경작을 추구하는 일종의 공산주의 경제제도를 제안하고 있지만, ① 무임승차자(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를 방지하기 위한 토지 분배, ② 일한 만큼 받아 가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완전하게 평등한 제도를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시 각에서 보면, ① 키부츠는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라는 점에서 초기에는 완전한 평등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여전제와 유사한 출발을 하고 있으나, ② 이러한 경우 공동생산 체제에서 부득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늘고먹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도의 개선(인센티브제 도입)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키부 츠가 뒤늦게나마 공동소유제를 포기하고 사유화의 방향으로 나아간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추세가 완전한 사유제로 귀결된다면 '평등'의 가치를 보장할 기회를 다시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 문에 '자유'와 '평등'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여전제'와 같은 제3의 대안이 요구된다.

■ 우수답안 분석

(1) 두 제시문에서 '평등'과 '불평등'의 관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지만, 각각의 개념들이 동일하게 사 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안에서 유사점에만 치중한다면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물론 두 제시 문 의 유사점으로서 '평등'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꼽 을 수 있다. 하지만 '평등'의 관념을 보면, 제시문 [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유'를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평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제시문 [나]에서는 '자유'에 대한 강조 없이 '평등'을 위한 '여 전제'를 제시한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불평등'의 관념에 대해서 제시문 [가]는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최소수 혜자에게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허용할 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자로서는 매우 사회주의적인 (시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불평등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시문 [나]에서는 제도에 내재하는 평등의 부작용(무임승차)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불평등'을 유발하는 차등 분배(서로 다른 수준의 분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 움으로써 제시문 [가]와 차이를 보인다.

(2) 이 문항에서는 '평등'을 이상적인 가치로 전제한 후 그것이 낳을 부작용을 교정하기 위해 여전제 와 인센티브제를 혼합한 형태의 제도를 제안한 제시문 [나]의 저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런 입장에서는 키부츠의 최근 변화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데, 집단소유와 공동 경작제도 하에서 개인들을 최소한으로 기여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당초 인센티브제를 고려하지 않았던 키부츠가 사유화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충분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제시문 [나]의 저자의 관점에서는 사유화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공유제와 사유제 사이 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 키부츠의 변화는 공유제의 문제점 때문에 다시 사유제 로 되돌아가는 극단의 선택을 할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면 높은 점수를 부여 할 수 있다.

[문제2] 제시문 [다]와 [라]에 나타난 소유를 바라보는 시각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시오. [30점]

■ 출제의도

학문적 지식은 다양한 의견들 간의 대립과 중재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수학능력 증 상이한 주장들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술 문제는 학생들이 제시문들에 나타난 주장들을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두 제시문은 공통적으로 소유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논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이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본 문제는 교과서에 나온 지문들을 통해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학생들이 이해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 우수답안

제시문 [다]와 [라]의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소유에 집착할 경우 부정적인 삶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소유에 집착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를 보인다.

제시문 [다]는 소유에 집착하게 될 경우, 심리적 항상성을 잃게 되어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소유물이 많아 부귀와 권세가 높은 경우, 이를 방만하게 활용하거나, 소유물에 미혹되어 환란을 면치 못 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남에게 빌린 것이므로, 이를 인지하고 소유물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반면, 제시문 [라]는 불필요한 소유가 인간의 의존성을 증가시켜 내면적 힘을 약화시키고,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역량을 낮춘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소유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인간의 본성과 창조성이 상실되고, 자연 및 동료들 등의 주위 환경과의 관계 역시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 결과 인간의 존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물에 대한 의존이 낮은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에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 우수답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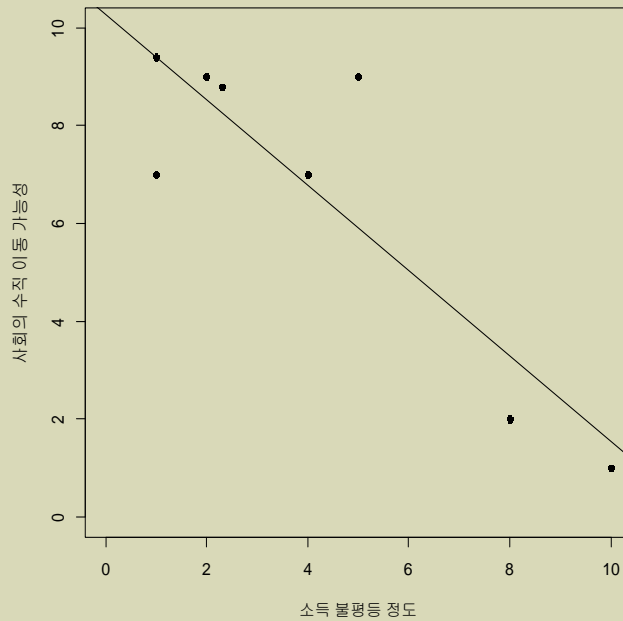
[문제2]에서는 제시문 [다]와 [라]에 나타난 소유에 대한 논의들을 중심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 이를 비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수 답안은 소유에의 집착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두 글의 공통적인 주장을 잘 파악하고 있음과 동시에, 두 글에서 나타난 차이점을 명확히 논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소유에 집착할 경우, 권력, 권세 등과 같은 자신의 소유물들을 방만하게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환란을 겪을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반면, 제시문 [라]는 불필요한 소유물에 너무 크게 의존할 경우, 인간의 존엄성과 창조성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행복해질 수 있는 역량이 낮아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우수 답안은 통일성 있는 형식을 통해 이러한 두 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있다.

[문제3] 다음 표는 A국과 B국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을 3단계로 구분하여 사회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30점]

<A국>					<B국>				
		부모 세대의 사회적 계층					부모 세대의 사회적 계층		
		상	중	하			상	중	하
자녀 세대의 사회적 계층	상	15	6	4	자녀 세대의 사회적 계층	상	24	2	0
	중	4	15	11		중	2	44	0
	하	1	4	40		하	0	1	27

주: 이 표에 나타난 숫자들은 A국 및 B국에서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모두 40세 시점의 사회적 지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1) 사회 계층 구조는 사회 구성원이 현재의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수직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방적 계층 구조와 폐쇄적 계층 구조로 구분된다. 다음의 그림은 몇몇 국가를 대상으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소득을 비교하여 소득 분포와 계층의 수직 이동성 간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이다. 위의 표를 바탕으로 A국과 B국 각각의 세대 간 사회계층 구조의 이동성을 평가하고, 아래 그림의 결과를 이용하여 A국과 B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추론하시오. [15점]



주: x축은 숫자가 커질수록 불평등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y축은 숫자가 커질수록 사회 이동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2) 사회 이동을 나타낸 위의 표에서 A국의 경우 부모 및 자녀 세대 모두 상위, 중위, 하위 계층의 소득은 각각 5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으로 계층 내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한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각각의 소득 불평등을 분석하는 데 있어 1인당 평균소득은 총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하여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분배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간값을 사용하는 중위소득(median income)을 사용할 수 있는데, 불평등의 정도가 증가하면 평균 소득과 중위소득 간의 차이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간의 차이를 바탕으로 A국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소득 불평등 정도를 비교하시오. [15점]

■ 출제의도

일반적으로 사회의 희소한 자원들이 불평등하게 분배된 결과에 따라 사회 계층을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한다.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회에 따라 각각 다르며, 같은 사회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 계층 구조를 살펴보면 한 사회의 희소한 자원이 어떠한 모습으로 분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한편 사회 계층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특징에 따라 이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회 이동은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도 하는데,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 사회 이동이 실현될 가능성이 큰 사회에서는 사회 이동이 그 사회의 정치적·사회적 통합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본 문제는 통계자료를 통하여 사회 계층 구조, 사회 이동 가능성의 정도 등을 파악하는 문제들이다. 통계자료를 통하여 특정 사회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여야, 사회 계층 구조, 사회 이동 등에 관련된 적절한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우수답안

(1) A국 및 B국에서 부모와 자식 세대 간에 동일 계층에 머물게 된 비율이 각각 $(15+15+40)/100=70\%$, $(24+44+27)/100=95\%$ 이다. 이를 보면 A국의 사회이동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을 보면, 사회의 수직 이동 가능성과 소득 불평등 정도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이용하면 B국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A국보다 소득 불평등 정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론할 수 있다.

(2) A국의 부모 및 자녀 세대의 평균소득은 다음과 같다.

- 부모 세대 : $5 \times 0.20 + 2 \times 0.25 + 1 \times 0.55 = 2.05$ 천만원

- 자녀 세대 : $5 \times 0.25 + 2 \times 0.30 + 1 \times 0.45 = 2.30$ 천만원

중위소득은 부모 및 자녀 세대 각각 1천만원 및 2천만원이므로,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차이는 부모 및 자녀 세대 각각 1.05천만원 및 0.30천만원이 되므로 이 기준으로는 자녀 세대에 소득불평등 정도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우수답안 분석

(1)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에 관한 구성비의 통계가 주어졌을 때 사회 계층의 이동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문항에서 주어진 통계표는 부모 세대 및 자녀 세대의 계층이 주어지면 구성비가 나오는 3차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각 표의 대각원소의 비중이 높으면 사회 이동성이 낮다는 통계표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이 결과를 이용하여 사회의 수직 이동 가능성과 소득 불평등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림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를 접목시키는 문제도 있다. 이는 상관관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다.

(2) 부모와 자녀 세대의 계층에 관한 3차원 구조의 통계에서 부모 세대 및 자녀 세대 각각의 계층 구조를 도출하는 과정을 중요한 풀이과정으로 한다. 이 단계를 거쳐 평균소득 및 중위소득 등의 산출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각 세대의 불평등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각 세대의 중위소득을 구하는 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중위소득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문제에서 제시된 표에서 A국에 해당하는 표를 이용하여 이 나라의 부모 및 자녀 세대 각각의 소득분

포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 세대의 경우 각 열의 합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자녀 세대의 경우 각 행의 합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A국의 부모 세대>

상 (5천만원)	중 (2천만원)	하 (1천만원)
20	25	55

<A국의 자녀 세대>

상 (5천만원)	중 (2천만원)	하 (1천만원)
25	30	45

중위소득은 부모 및 자녀 세대 각각 1천만원 및 2천만원이므로,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차이는 부모 및 자녀 세대 각각 1.05천만원 및 0.30천만원이 되므로 이 기준으로는 자녀 세대에 소득불평등 정도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